

# 지역 디자인업체 해외진출 발판 다졌다

##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오늘 폐막

13일 막을 내리는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는 당초 주최측이 목표로 했던 디자인 산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지역업체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이 실제 제작돼 해외 진출을 앞두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보였다.

하지만 늦은 총감독 선정, 짧은 준비기간 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운영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또 행사 진행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센터가 함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추진단을 꾸렸지만 양측의 불협화음으로 원활한 행사 진행이 방해 받는 등 문제점도 노출됐다.

35개국 30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 가장 관심을 끈 전시는 1관에서 진행된 '광주 브랜딩'전이였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독특한 디자인의 조명 기구와 주방용품 등 9개의 생활 용품은 세계적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고 지역업체가 제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알베르토 메다와 남양조명공업사의 '메카노 조명', 송봉규와 ㈜담다의 '모듈러 트레이', 정수와 엘피스튜디오의 'G-보틀', 한경하와 광주금형의 '자연의 풍경을 담은 키친툴', 데니스 산타치아라와 ㈜세전사의 '엘프' 조명 등이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참가업체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스나인(대표 박유복)은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디자인한 식기세트 '미니맨' 찻주전자와 찻잔 세트를 12월 출시하며 전

## 세계적 디자이너들과 협업

### 특특 튀는 9개 생활용품 눈길

### 곳곳 운영 미숙·불협화음 노출

### 홍보 부족 관람객수 기대 이하

세계 5000여개 매장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 디자인기업 '알레시' 입점도 앞두고 있다.

2관 '아시아 디자인 허브'전은 한·중·일 3국의 디자인 현황을 한눈에 보여줬다. 아가지기한 소품이 돋보인 일본관 등은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다. 각국 작가들이 선보인 작품들을 통해 아시아 생활 디자인의 미래를 보여줬다. 또 4관 '뉴이탈리아 디자인 2.0'은 재미와 가능성을 갖춘 작품들이 등장했다. 지금껏 기능에만 충실했던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한 관람객들의 시야를 넓혀준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은 11일 현재 6만9871명으로 당초 예상 목표 수 10만명에 크게 못미쳤다. 이는 전시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지난 2013년 22만명, 2011년 25만명에 비해 아쉬운 숫자다. 관람객 수가 감소한 데는 지난 행사에 비해 무료 입장객 수가 줄어든 데다 무엇보다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홍보를 거의 하지 못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주관기관을 광주디자인센터로 정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광주시 직원을 투입해 추진단을 새로 꾸렸다. 디자인센터장이 추진단장을 맡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광주시에서 전담하고 있다보니 전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총감독과 지역업체를 챙겨야 한다는 입장의 광주시간 불협화음도 엿보였다.

광주시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보니 3관 광주문화디자인숍은 이번 행사와 따로 노는 양상이었다. 약 100개 업체가 참가한 광주문화디자인숍은 '비엔날레'라기 보다는 아트상품을 쪽 나열한 박람회 모습이었다는 지적이 따른다.

전시기간 내내 3관에서 진행한 디자인콘서트 등은 감사, 시간 등 사전 홍보가 부족해 관람객들의 참여가 아쉬웠다.

도록도 다시 제작됐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나왔어야 하는 도록은 행사가 시작되고 일주일일이 지난 지난달 20일께 배포됐다. 600부 기량 제작했고 이중 70여권(1권당 3만원)은 판매했다. 하지만 지역업체 분량이 적다는 의견에 따라 사진 등을 더 추가해 추가 제작이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구입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분량과 질이 떨어지는 도록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또, 1관 '국제홍보상징관'에 전시된 이가진 작가의 청자 작품 경매도 도마에 올랐다. 이 작품은 국내외 인사 50명이 고안한 문양이 새겨졌다. 추진단 측은 당초 이 작품을 전시기간에 서면경매를 하고 폐막식 날 응찰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수익금은 유니세프에 기증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시관에는 경매방법 등을 알려주는 홍보문구 등이 없었고 입찰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스쿨피아 싱어즈 정기공연

##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스쿨피아 싱어즈(단장 김성국 광주교육대 교수) 제31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스쿨피아 싱어즈는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여교사와 예비 교사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00년 창단 후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이고 있다.

'함께해요 노래의 날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 가곡,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비제의 '아누스 데이', 이수인 곡 '고향의 노래', '개여울', '내 맘의 강물', 드보라작의 '꿈속의 고향',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하덕규 곡 '가시나무', '한계령', '님과 함께 등



김성국 교수

이다. 피아노 반주는 정해진·이은주씨가 맡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중창단 칸타빌레, 바리톤 김홍석, 피아니스트 서윤진씨, 피아니스트 권연가 특별출연해 이기경 곡 '거기', 드라마 '장희빈' OST '그대 향한 사랑', '동요 연곡', 리스트의 '에스테 빌라의 분수' 등을 들려준다. 문의 062-520-41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교원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교원윈드오케스트라(단장 장일남·사진) 정기연주회가 13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광주교원윈드오케스트라는 광주에서 근무하는 음악교사와 방과 후 활동 교사들을 주축으로 지난 2005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용택씨가 지휘를 맡은 이번 연주회에서는 아람 데 한의 '로스 로이', 오페라 '투란도

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제임스 바너의 '알라바바 서곡', 'Time to say goodbye', 브라질 음악 '코파카바나', '거위의 꿈', '카라반' 등을 들려준다. 또한 국내 요즘계를 대표하는 김홍철씨가 광주알림로제 요들 클럽 회원들과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푸른 장공에 로프를 던져라' 등을 선사한다.

그밖에 소프라노 이지선씨가 '산촌'과 '오솔레미오'를, 색소폰 연주자 윤주승씨가 '그라나다'를 협연한다. 문의 010-5612-322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민예총 15일 증심사 문빈정사서 '통일 마중물 축전'

2015 광주민족 예술제 '통일 마중물 축전'이 오는 15일 오후 3시 무등산 증심사 문빈정사 경내에서 열린다.

조계종 문빈정사(주지 법선)와 광주민예총(회장 윤만식)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풍물패 '물림'의 김늘이와 열림굿으로 문을 연다.

이어 안오일·김미숙·고영석의 시낭송 '찾고 싶은 기억', '어떤 탁발', '장엄' 등이 펼쳐지며 정

용주씨가 '세월이 갈수록'과 '지리산'을 부른다.

또 (사)내뽀소리 김미혜씨의 '임진강', '연변 아리랑'과 유이남의 '바람이고 싶다' 공연이 이어지며 극단 '토박이'와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공연도 펼쳐진다. '들만에서', '우리는 하나',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지며 (사)민족미술협회는 참가자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행사를 갖는다. 문의 062-529-1156. /김미은기자 mekim@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3일 폐막한다. 1관 '광주브랜딩'전을 살펴보는 관람객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 나는 **몸신**이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MC / 정은아

이용식 **엄영란**

조민희 **변우민**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